

관찰과 사유가 설계의 밑그림 건축가 로랑 살로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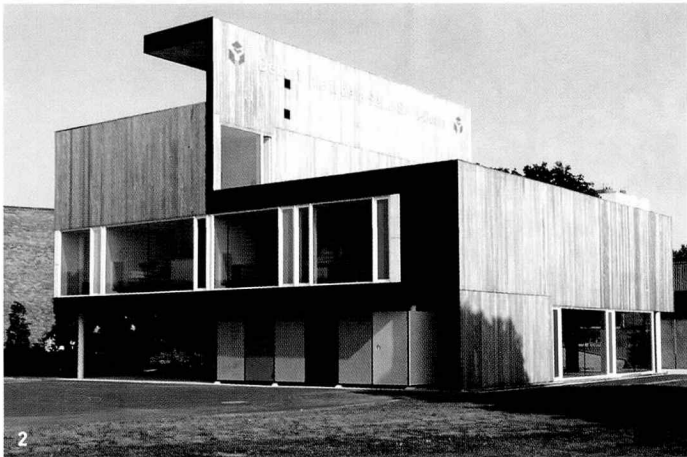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설계 공모 입선과 헤이리 아트밸리 프로젝트로 우리와도 친숙한 세계적인 건축가 로랑 살로몽(Laurent Salomon)을 파리 작업실에서 만났다. 물론 짧은 틈을 내 인터뷰 촬영을 마친 뒤, 다섯 통의 국제전화와 여섯 차례나 질의서가 담긴 이메일이 오간 뒤에야 기사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에디터 | 정명호 · 사진 | 김홍성

파 리-벨빌 건축대학교 교수이기도 한 로랑 살로몽에게 지난 시대의 건축 이론과 설계 기술을 강의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사유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간의 삶과 건축의 조화에 대해 한번 더 이야기하길 원한다. 현대 건축가들의 면면을 설명하는 대신 위대한 내부 공간 연출가로서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와 이탈리아 화가 티에폴로, 그리고 피카소를 언급하는 건축가가 바로 로랑 살로몽이다.

“집은 내부에서 외부의 환경을 보는 곳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공간에는 강한 연속성이 필요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렬한 빛 속에 존재하는 외부와 은은한 빛을 가진 내부를 배합해 복합적인 빛을 가진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베르메르나 티에폴로가 그린 회화적인 공간을 이미 르코르뷔지에는 건축으로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인 특유의 은유와 상징이 녹아든 그의 이야기에는 바짝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명료한 모던 건축처럼 보이던 그의 건축물들이 보다 심오한 상징과 미학을 드러내는 조형물로 거듭나듯 로랑 살로몽과의 대화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행간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느껴지는 것이다. 사실 <르몽드> 지에서 격찬한 생-프리스트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메지외 주거 단지, 생-알방 중학교, 토르시 시청사, 로데악 노인병원 등 전문가의 입에 맹렬히 오르내리는 포트폴리오로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로랑 살로몽은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 설계 공모 입선과 헤이리 아트밸리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최근엔 용인 양지의 타운하우스 루아르밸리 설계로 친숙한 건축가다. 그에게 어떤 질문부터 던져야 할지 명쾌해진 셈이다.





한국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는데, 처음 한국이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1982년부터 건축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국 학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간에 대한 특별한 감각과 높은 문화 수준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던 차에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 설계 참여를 계기로 좀더 많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설계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그리고 나를 매료시킨 한국 문화에 대한 내 자신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년 두차례 정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올해에는 84번째 방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투명성과 가벼움을 한국 건축의 특성이라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한국의 건축이란 한국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 건축입니다. 투명성(La Transparence)은 주변의 자연을 건축적 내부 공간을 통해서 하나의 화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사물의 거리나 깊이와 단절된 틀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이는 일본 건축처럼 축소화된 자연을 통해 심적인 자연을 표현하지 않으며 중국과 같이 절대적인 벽으로 내부 공간을 외부 세계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벼움은 들어올려진 바닥을 받치는 석재 구조와 그 사이를 메우는 흙벽, 미닫이문으로 구성된 얇은 깊이의 몸체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는 지붕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국 건축에서 나타나는 이렇듯 훌륭한 지역적 특성은 미국의 영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화적이고 현명한 젊은 건축가들이 현대적인 방법으로 비길 데 없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한국의 특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한국의 빠른 속도와 프랑스의 느림 혹은 여유는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 프랑스적 건축 상황과 한국적 상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축적인 미래와 창조성을 이야기하자면 프랑스는 공공 건축 부분이 중요한데 비해 한국은 개인 건축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엔 세계화 물결을 감내해

야하는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담지 못하고 단지 이벤트만을 만들어내는 메시아적인 건축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축 설계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의 시작과 관련된 사유의 역할입니다. 저에게 건축은 인간의 삶과 건축이 위치하는 장소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건축은 사유와 설계,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연과 인공물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직감에 의존한 건축이 영원히 성공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사유가 각각의 우리 행동을 이끌어야 하며 완결된 환경을 만드는 건축가의 책임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예술적인 동시에 지적이어야 합니다.

로랑 살로몽의 손길이 닿은 건축에는 어디에서나 프랑스 전통의 모던함이 묻어난다. 수많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흥하면서도 그만의 스타일을 공존시킨다는 자체가 거장의 면모 아닐까? 현대 도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물의 기능성을 살리면서 공간감을 부여하는 형태의 작품을 선보여온 그는 앞으로도 도시 공간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계획이다. ☺



1 프랑스 파리의 작업실에서 만난 로랑 살로몽. 2·3 살로몽은 모던한 프랑스의 건축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직선과 곡선의 모임을 특유의 균형 감각으로 살려낸다. 그의 작업은 공공건물의 유려한 디자인에서 더욱 빛난다. 4 용인 양지에 들어서는 타운하우스 루이아벨역역시 로랑 살로몽의 작품이다.